9월 광주 오는 '캣츠' 미리 보니…

인생이 녹아 있는 뮤지컬 … 마법같은 환상의 무대

공연장 불이 꺼지고 서치라이트가 객석을 비추기 시작했다. 갑작스레 곁에 다가선 고양이들에 놀란 관객들의 외침이 들리고, 무대 위로 모여든 30명의 고양이들은 흥겨운 음악에 맞춰 '젤리클 노래'를 부르며 진짜 고양이 같은 움직임으로 파워풀한 춤을 선보였다.

지난 14일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린 오리지널 투어팀의 뮤지컬 '캣츠' 공연은 이 작품이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세계 6천500만명의 사랑을 받으며 '롱런'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보여준 무대였다.

2시간 40분(중간 휴식 포함)의 공연이 끝나자 평일임에도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기립박수로 배우들을 격려했고 극중 음악을 흥얼거리며 행복한 표정으로 공연장을 나섰다.

'메모리' 등 대중성 강한 음악에 전율

'캣츠'는 T.S 엘리엇의 우화집 '지혜로운 고양이가 되기 위한 지침서'를 토대로 하고 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고양이들의 축제인 '젤리클 볼'에 모인 각양각색의 고양이들이 새로 태어날 '고양이'를 선택하는 과정이 주된 줄거리다.

실제 고양이와 흡사할 정도의 정교한 분장과 의상, 몸놀림의 고양이들은 각각의 독특한 경험을 노래와 춤으로 풀어내며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그 중에서도 골반을 흔들어대며 암컷 고양이를 유혹하는 바람둥이 고양이 럼 텀 터거는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 중의 하나. 또 극을 이끌어 가는 멍커스트랩, 20바퀴가 넘는 회전을 선보인 마법사 미스토펠리스 등은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캣츠'에는 인생이 녹아 있다. 이제는 늙어버린 극장 고양이 '거스'의 노래는 관객의 마음을 울리고, 여주인공 그리자벨라가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부르는 유명한 두번의 '메모리'는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오페라의 유령'으로 유명한 '미다스의 손'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음악은 곳곳에서 빛을 발한다. 물론 '캣츠'의 대표곡은 '메모리'이지만 커튼콜과 함께 다시 한번 울려 퍼지는 '스킴블샹크스', 극의 처음을 알리는 '젤리클 고양이들의 젤리클 노래' 등 중독성 강한 음악들은 공연 내내 몸을 흔들게 만든다. 특히 한국 관객들을 위해 고양이 실라밥이 '메모리'를 한국말로 부르는 장면에서는 관객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지난 2003년 무려 38만명을 동원했던 천막 공연 이후 4년만에 다시 한국을 찾은 오리지널 팀 '캣츠'는 당시보다 훨씬 역동적인 무대와 스펙터클한 안무, 강력한 춤을 선보였다. 특히 1부 마지막에 등장하는 젤리클 축제의 군무는 이번 작품의 백미다

천막극장과 달리 정식 공연장에서 올리는 이번 '캣츠'는 훨씬 다양하고 화려한 조명과 세트, 음향시설을 통해 수준높은 무대연출을 선보였다.

작품의 백미는 젤리클 축제 군무

관람을 위한 팁 하나. 즐거움을 두배로 느끼고 싶다면 통로 쪽 자리를 잡을 것. 고양이들은 공연 내내 수시로 객석을 어슬렁 거리고 막간 휴식 시간에도 공연장에 머물며 갖가지 묘기를 선보인다. 통로 쪽 객석에 앉는다면 섹시한 고양이가 당신의 무릎 위에 앉아 아양을 떨어주고, 발밑에서 당신을 물끄러미 바라볼 것이다.

또 한국어 자막이 나오기는 하지만 내용이나 대본을 예습하고 간다면 훨씬 더 재미있게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미리 음반을 구입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음악과 친숙해 지는 것도 좋다.

광주 공연은 오는 9월 7일부터 16일까지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구=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14일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린 '캣츠' 오리지널 팀의 공연은 뮤지컬의 진수를 보여준 작품이었다.

獨 화랑 매료시킨 '세오' 국내 전시회

〈조선대 출신 서수경씨〉

20일부터 내달 8일까지 갤러리 현대서

조선대학교 출신으로 독일 미술계에서 스타작가로 자리매김한 서수경(31·독일명 세오)씨가 국내 전시회를 갖는다.

지난 2000년 조선대 미대(한국화과)를 졸업한 뒤 독일 베를린 미대에서 신표현주의의 거장 바젤리츠에게 수학한 그는 독일은 물론 세계 미술계가 주목하는 유망 작가다.

지난 2월에 열린 스페인 아르코 아트페어에서 작품이 거래됐으며, 540억원이 투입돼 2008년 독일 쾰른에 세워질 호텔 Art'otel에 단독으로 작품을 설치하는 작가로 선정돼 화제를 모았다. 그는 독일 화랑 마이클 슐츠 갤러리의 전속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가 해외작업을 결산하는 전시를 서울 갤러리 현대에서 갖는다. 2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이번 전시에서 그는 한국적 기법으로 독일적 주제를 표현, 유럽화단으로부터 '신낭만주의 화풍'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업세계를 보인다.

작품들은 주로 동양화의 바탕 위에 페인팅과 한지 꼴라주를 합성한 것들이다.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 I'

'My German Dreams series' 연작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명상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어린 사상가', '위대한 사상가' 등은 정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동양적인 소재를 독일인의 정서로 화폭에 옮긴 것이다. 문의 02-734-6111.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크로스 오버 앙상블 '허브'

19일 광주문예회관 화요예술무대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크로스 오버 앙상블 '허브'가 화요예술무대에 오른다. 19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클래식 음악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공연을 열어온 허브는 'JAZZ With 'A' trio'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 스윙, 라틴, 펑키 등 다양한 재즈 음악을 들려준다.

방극만·임정식·하건·김보연·김세원·신나정·조유석씨 등이 출연하며 특별 초대손님으로 재즈 보컬리스트 김희선씨가 무대를 빛낸다. 티켓가격 2만원, 1만원. 문의 062-675-402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국학원, 건강·행복 컨퍼런스

광주국학원(원장 송재준)은 오는 21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퍼런스홀에서 '제2회 건강·행복·평화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병택 국학원 교육이사가 '민주·인권·평화의 길 '국학'', 김남희 트레이너가 '행복한 웃음', 김현철 트레이너가 '30~10년 젊어지는 비결 '장생보법 뇌간운동'' 등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국학원은 '한민족의 새로운 탄생과 지구경영을 위하여'라는 설립이념으로 지난 2002년 설립돼 국민강좌, 국학포럼, 학술회의 등을 열어오고 있다. 광주에는 2천여명의 회원들이 있다. 문의 062-262-7723.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남향집' 타향살이 끝내야

"올 가을 국전에 깜짝 놀랄만한 작품을 출품해야겠다."

1982년 5월 광주 지산동의 초가집. 오지호(1905~1982) 화백은 여느 때와는 사뭇 다른 표정으로 캔버스 앞에 앉았다. 80년 아프리카 여행에서 깊은 인상을 받은 세네갈 소년들을 화폭에 불러내기 위해서다. 검은 피부에 흰 이를 드러내며 건강한 웃음을 지었던 소년들은 평소 화백이 꿈꾸던 원색의 생명력, 그것이었다.

하지만, 이 그림은 그해 국전에 출품되지 못했다. 그림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교통사고를 당해 후유증에 시달리다 세상을 뜬 것이다.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겠다며 벼르던, 노년의 야심작 '세네갈 소년들'은 미완성 유작이 되고 말았다.

지난 1936년 세상에 나온 '처의 상'은 '지산동 안주인' 지양진 여사가 주인공이다. 흰색 저고리와 빨간 옷고름, 옥색치마의 색상을 대비시킨 이 그림은 한국적 인상주의를 보여준 수작으로 꼽힌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지만, 고인에게 '처의 상'은 그림 이상의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화가의 길을 선택한 그를 평생 그림자처럼 내조한 부인에게 보낸 연서(戀書)였기 때문이다.

이들 작품에는 예술가이자 범부(凡夫)였던 오 화백의 삶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들 오 화백의 작품들을 광주에서는 보기 어렵다. 물론 광주 시립미술관에 몇몇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지만 그의 총체적 예술세계를 접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 지역에서 그의 작품을 보기가 힘든 이유는 지난 85년 유족들이 '남향집' 등 대표작 34점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했기 때문이다. 82년 오 화백의 타계 후 가족과 미술인들이 전남도에 미술관 건립을 건의했지만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결국 무산됐다. 생전 "작품 한점을 팔면 먼 객지에 딸을 시집보낸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프다"던 그였지만, 영구보존할 전시장을 구하지 못해 화백의 작품들은 '쫓기듯' 광주를 떠나야 했다. 방한칸 없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고향을 전전하느니, 자신을 불러준 과천 현대미술관을 택한 것이다.

오는 9월 새 광주 시립미술관 개관을 앞두고 오 화백의 대표작들을 광주로 가져오자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전시장이 없다면 모를까, 번듯한 새 시립미술관이 광주에 들어서는 만큼 더 이상의 타향살이는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광주 시립미술관은 현대미술관에 작품 영구임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귀추가 주목된다.

화가의 작품은 그의 삶과 예술혼이 깃들어 있다는 점에서 분신(分身)이나 다름없다. 지역이 배출한 거장의 예술세계를 후손들이 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이들 유작들을 광주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려 주는 현대미술관의 전향적인 결단이 요구된다. 그가 있어야 할 곳은 '남향집'의 체취가 아직도 살아 숨 쉬는, 여기 광주이기 때문이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런던약국사거리 ♡예매1544-0600

M관	오션스 13(12세) 최고급관
2관	슈렉3(15세/한글자막)
3관	밀양(15세)/슈렉3(15세/한글자막)
4관	쉬즈더맨(15세)/캐리비안의 해적3:세상의 끝에서(12세)
5관	황진이(15세)
6관	황진이(15세)
7관	메신저-죽은자들의 경고(12세)
8관	캐리비안의 해적3:세상의 끝에서(12세)
9관	러브 and 트러블(15세)

5월 1일부터 메가티즌 데이 할인이 종료됩니다.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무료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주차장이 편한 극장──

엔터 시네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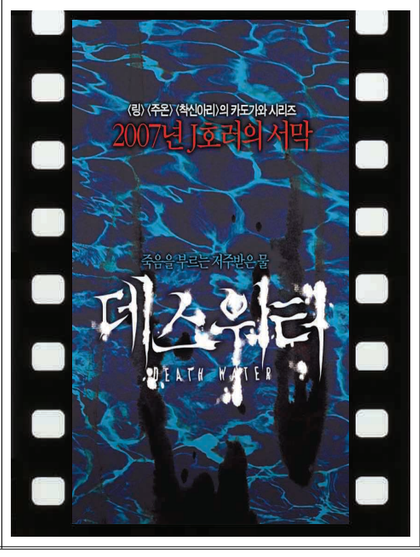
충장로 5가 ☎ 228-2700

1관	캐리비안의 해적3(12세)
2관	황진이(15세)
3관	황진이(15세)
4관	데스워터(15세)
5관	캐리비안의 해적3(12세)
6관	못말리는 결혼(15세)
7관	밀양(15세)

금,토(2일간) 심야상영

* 자주식 동시 주차장 200대 <3시간 무료> *

* 매주 금·토 심야 2,000원 할인 *



향토사랑 영화사랑 * 예매:www.joycbc.com/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하남점

상무점(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무역회관뒷편)

1관	슈렉3(전체/자막)
2관	〈어린이전용관〉나루토(전체/더빙)
3관	슈렉3(전체/더빙)
4관	슈렉3(전체/더빙)
5관	러브&트러블(15세)
6관	캐리비안의 해적-세상의 끝에서(12세)
7관	황진이(15세)/오션스13(12세)
8관	밀양(15세)
9관	황진이(15세)
10관	오션스13(12세)

* 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콜롬버스 하남점(10개관) 절찬리 상영중 상담원연결 방법 →(1번 or 2번) → 0번

즐거움이 가득 * www.mc12.co.kr/ 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1관	메신저(12세)
2관	러브&트러블(15세)
3관	슈렉3(12세)
4관	슈렉3(12세)
5관	황진이(15세)
6관	오션스13(12세)
7관	밀양(15세)
8관	데스워터(15세)
9관	캐리비안 해적(12세)

*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 탑클래스 회원만을 위한 전용창구 마련
* 전화예약 가능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새로운 기쁨 * www.primuscinema.com/www.jeilcinema.co.kr *

제일 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오션스13(12세)
2관	캐리비안의 해적3(12세)
3관	슈렉3(12세)
4관	황진이(15세)
5관	메신저(15세)
6관	밀양(12세)

*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주차타워)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